“화쟁 지혜로 갈등 파도 넘어서자”

불기 2570년 대한민국 불교도 봉축대법회

1면에서 이어짐

불교계 · 정관계 인사 700명 참석
국민 화합 · 상생 가치 확산 다짐
진우 스님 “도반 될 때 대도약”

정계 인사 “국민 통합 · 화합” 강조
사회통합 · 평화 기원 목소리 이어
‘화합 물결, 상생 길’ 합수식 눈길

글=임은호 기자 · 사진=박지운 수습기자

국민 화합과 상생을 발원하며 불교계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 등 7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법회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선명상 수행의 의미를 나누며 시작됐다.

진우 스님은 봉축법어에서 “화쟁의 지혜로 갈등의 파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화쟁’ 가르침을 통해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 하나의 큰 바다를 이루듯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일러 주셨다”면서 “정치와 사회의 모든 지도자가 상대를 꺾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도반으로 여길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찾고 대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국불교의 기개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강력한 스스로의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수호하되,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정신으로 평화를 일궈 나가야 한다”면서 “남과 북, 북과 남의 대화가 단절돼 생긴 불안의 울타리를 넘어 이 땅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의 꽃이 만개하도록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는 동체대비 손길을 강조하며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에 따라 세대 통합과 국민 평안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스님은 “젊은 불교, 선명상의 향기로 세상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중생이 차별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자비의 길로 나아가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나라의 안녕과 사회 통합,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의 개회사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봉축 축원에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인사에서 “오직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고행한 부처님 마음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측은지심과 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가 ‘화쟁’ 정신을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이를 품는 자비의 마음과 지혜롭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키워 세상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불교리더스포럼이 주관한 ‘불기 2570년 대한민국 불교도 봉축대법회’가 4월 20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봉행됐다. 700여 동참자들이 부처님 지혜의 봉을 흔들며 갈등의 파고를 넘어 대도약을 이룰 것을 발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세대, 지역, 종교, 정치 등 여러 영역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불안한 세계 정세까지 더해져 개인의 삶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심에 불교 전통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자들이 먼저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당 대표와 국회정각회장 등은 축사를 통해 국민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진행된 서울국제박람회와 국제선명상대회를 언급하며 “AI시대, K-컬쳐를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불교가 우뚝 설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관심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심은 휴전선을 넘나들 수 있는 큰 정신”이라며 “호국정신을 발휘해 불교가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데 정치계가 먼저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고단한 삶에 온기를 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쟁과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 시대일수록 상생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보듬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도 “정각회는 부처님 가르침 아래 여야를 넘어 소통과 협력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화합의 물결, 상생의 길’을 주제로 한 합수식은 불교계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연출됐다. 각계 인사들은 혼탁했던 연못에 공존, 화합, 상생을 상징하는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통해 연못이 점점 청정해지고 화합의 물결, 상생의 길을 불교도가 함께 열어가길 염원했다.

동참 대중들은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대표 낭독한 봉축발원문에서 “정치, 군사 갈등으로 벌어지는 전쟁과 환경, 기후위기로 발생된 기아, 경제 불안정 등의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이 시대를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내려 달라”고 발원했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 국보 승격

국가유산청, 23일 지정 공고
조선 동종 양식 완성작 평가

조선 전기 동종 완성작으로 평가받는 ‘남양주 봉선사 동종’이 국보로 승격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조선 전기의 대형 동종 ‘남양주 봉선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의 제8대 국왕 예종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자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하여 모신 동종이다. 이 동종은 조형적으로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한국 동종의 문양 요소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강희맹(1424~1483)이 짓고, 정난종(1433~1489)이 쓴 주종기(鑄鍾記)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 봉안처, 제작 장인 등이 담겨 있는데 일부 장인은 흥천사명 동종이나 옛 보신각 동종 제작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대형 동종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이운 없이 제작 당시의 봉안처인 봉선사 종각에 그대로 봉안돼 있고 균열이나 구조적 결함이 거의 없고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다”면서 “또한 한국 동종의 양식사에서 조선시대 동종의 전형을 완성한 기준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고려시대 상감 청자인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 조선시대 초상화인 ‘유효걸 초상 및 궤’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으며 이미 지정돼 있는 보물 ‘윤증 초상 일괄’에는 초상 1점과 영당기적 1점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 등에 대해 소유자 등과 협조해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중동 전쟁 끝내고 평화 이루길”

7대 종교 대표 전쟁 종식 입장문
당사자 자제 · 국제 외교 노력 요청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이 4월 17일 중동 지역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최근 중동 지역의 갈등은 여전히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시적인 멈춤이 또 다른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의 의지로 반드시 확고한 종전을 이뤄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제사회 또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한층 더 책임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갈등도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공존을 향한 길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